

성숙한 서른살... 이제 ‘박제’ 탈피 시민들의 5·18로

〈목 차〉

제1부 되짚어 본 5·18

제2부 민주·인권의 가교

제3부 긍정에너지로 승화

‘한국 민주주의 초석’,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교과서’ 5·18민중항쟁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5·18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5·18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5·18에 대한 의의와 정의, 설명 등이 너무나 이론적이고, 작위적인 탓이다.

며칠 전 양동시장에 들를 일이 있어 1980년 당시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줬던 어머니들을 만났다.

“우리 그때 별다른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좋은 일이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한 일을 한 것이지, 우리도 시민들도...”

그렇다. 좋은 일이라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섰던 것이 바로 5·18인 것이다.

물론 그 진정성과 역사성을 인정받기까지 많은 희생과 세월이 흘렀지만 현재는 사회학적, 정치학적 이론과 해석 방법 등이 동원되면서 5·18은 기존의 혁명과 같이 박제화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국 현대사를 바꾼 큰 역사적 사건임에는 확실하지만 우리의 실생함과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이유다.

◇5·18의 생활화=이제 5·18은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와야 한다. 5월 단체 간 화합이 이뤄지지 않고, 사회단체 간 역량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시민들은 자연히 5·18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아니 소외되고 있다는 편이 맞을 것이다. 5·18에 대한 시민의 자량과 긍지가 5·18을 이용하거나 독점하려는 일부 단체나 세력들 때문에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5월 행사부터 시민들에게 들려줘야 한다. 매년 시민 참여가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5·18과 관련한 모든 행사는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해야 한다. 시민이 꾸리고, 후대에 전하지 않는 5·18은 1시간 정도의 기념행사로 족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월 관련 단체들은 조속히 통합을 이뤄 시민들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반목과 대립으로 분자화돼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제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야 하며, 시민들도 기본적인 공공질서를 비롯한 민주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오월 정신의 구현= 광주지역 내 5·18과 관련한 기념 공간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국립 5·18민주묘지와 5·18구묘지, 기념공원, 기념문화관 등 서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도시개발로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항쟁 발발 사적지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도 절실하다.

이들 공간들은 대부분 5·18의 재현과 추모 성격에 치중, 단순한 5·18정보제공에 집중하면서 시민이나 관객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지역민이나 국내인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화를 이룬다는 것은 역부족일 뿐이다.



오월을 넘어 광복을 넘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심층 기획



5·18민주항쟁 3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 수피아 여중생 300명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묘비를 닦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그날의 공동체정신 생활화

지역 민주주의 성숙시키고

국제연대 亞민주역량 강화

광주지역 기념공간 중 구심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은 역시 옛 전남도청 및 인근 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곳에 건립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5·18공간은 철저히 항쟁에 대한 체험과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돼야 하며, 나머지 기념공간들은 상호 보완작용을 하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영화나 뮤지컬, 연극 등 유무형의 문화 활동도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영화 ‘화려한 휴가’ 한편으로 온 국민이 당시의 실상에 경각하고 감동했던 것을 감안하면, 문화사업을 통한 5·18 알리기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보다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도 다양한 연극과 소설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해 제작이 중단된 영화도 있다.

5·18기념재단이나 또 다른 제3의 단체가 5·18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문화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5·18=5·18은 아니러니하게도 전국화에 앞서 세계화에 성공한 항쟁이다. 80년 이후 직접적으로 1986년 필리핀 2월 혁명과 1992년 태국 5월 혁명 등이 5·18에 영향을 받아 발발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독재 세력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은 한국의 5·18항쟁 전개 과정과 성공 사례를 하나의 ‘교과서’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매년 수명 씩 5·18기념재단에 파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도 이들 국가에 직원들이 매년 파견돼 현지인들을 상대로 5·18을 교육하고 있다.

이젠 5·18만을 바라보며 힘든 민주화투쟁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줄 차례다. 그들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국제적 연대를 통해 민주화 투쟁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이다. <끝>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다음 카페 ‘5·18 민주화운동-80518’

회원 4000여명...5·18 세계화 첨병

유가족 증언록·항쟁 일기 등 게재

다음(daum) 카페 ‘5·18 민주화운동-80518’(http://cafe.daum.net/80518)’은 5·18을 알리고 5·18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2002년 개설됐다. 5·18 당시 전북대를 다니다 신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이후 미국으로 떠난 이상원(49·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검사관)씨가 카페지기다. 현재 4347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매일 50여명이 들어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 아저씨 임정수씨도 2004년에 이 카페에 가입해 현재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카페에는 5·18 역사와 당시 사진, 동영상, 기사스크랩 등의 관련 자료와 더불어 유가족들의 증언록도 게재돼 있다. 또 1980년 5·18 당시의 광주 상황을 적은 ‘광주 일기’의 영문판과 같은 시기 전북 전주시에서 작성된 항쟁일기도 있어 네티즌들에게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카페에 들어온 회원들은 이러한 5·18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5·18 30주년 행사계획과 일정을 위해 토론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5·18을 주제로 소통하고 있다.

5·18을 공부하는 10대 청소년들을 위해 ‘10대 여러분 함께해요’ 게시판도 있다. 이곳은 5·18에 대

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나누고, 현재 고민과 생활을 한 줄로 쓰는 공간이다. 5·18을 공부하는 청소년 회원들의 영어실력을 위해 어린왕자 영문판과 SAT 문제 등도 게시돼 있다.

그리고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희망의 5월 장학회’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정 장학회비를 약정하는 회원들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18 유가족 자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희망의 5월 장학회는 올해 3년째이며, 전국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계좌당 매월 5000원 이상을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매년 5월 5·18국립묘지에서 5·18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희망의 5월 장학회’ 기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네이버 해피빈(http://happylog.naver.com/gv2080.do)에 들어가 콩(1개에 100원)을 후원하거나, 80518 다음 카페에서 매년 CMS 자동 출금을 통해 장학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활동 문의는 계양봉사단 032)542-5056, 임정수 010-6322-0053으로 연락하면 가능하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서울)
퍼스트부동산
☎ (02) 515-8698
010-6245-5585

전국

싼

땅

팔 분

1천만 ~ 10억

즉시
계약

물물교환도 환영

금산공인중개사

T.681-5888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주택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흥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
- ④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⑤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로 광로변)
- ⑥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방화지구
- ⑦ 10층 신축건물 옆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김진군 칠랑면 칠랑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유 810㎡
- 특징: -주유권속시설 허가 특 -도로점유 허가 특 -미랑에서 광주상행선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칠랑농공단지앞 유입주유소
- 매매가 : 1억 7천만원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개발한 '큰 놀'

아내가 개발한 큰놀이 인기폭발이다. 그동안 거대가 크면 실망이 컸듯 큰 기대를 걸고 이것저것을 고가로 사서 사용해 보았으나 사용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하여 아까운 돈만 날려 버리고 허탈감 속에서 불신임만 쌓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큰놀을 보고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듯이 혹시나 하고 이번에도 반신반의하여 사용해 보았더니 그 신기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사용처가 불만 일어서며 장시간 지속되는 공인지 생시인지 청춘으로 돌아간 듯 뿌듯함을 느낀다. 몇가지부전 개선을 위한 기구 상용신안 특허 제20-2009-0014857호는 보지 않고 구매 하여도 파부같은 축산에



탈 핏 이 모양같은 실리론이 처음 보이며 주사나 약도 아니고 반지 같은 링이나 진공 펌프도 아닌 신제품 큰놀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장 없이 반영구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불티나게 날개 뜰쳐 나가고 있다. *기구를 선호하지 않는 분은 회춘의 꿈, 파워마카100% 분말로 대신하면 좋습니다. 130알분 90,000 60알분 150,000 * 구매시 핫나경시력이 없는 것은 유사품입니다. 99,000원

인기폭발 “양코” 지구력향상!!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해 지므로 복음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동신판매 신고증 제1188호) (G-FLOW)

1588-4102
010-8558-4114, 010-8952-4114

농협 301-0036-8883-71 메글주:글로블 핫나경 www.핫나경.kr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이의 최대의 고민해결!

증간에 시들거나 강직도가 약해지고 너무 빠르... 분들의 “기”가 원활해지도록 도움 드리며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만한 마그네트릭의 다이아몬드 링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도록 10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8만원 상당의 고급 사은품 증정)



은 60% 대, 중, 소 10단계조절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4학년의 신비 그린머드(멘토나이트)가 만들어 내는 3개월의 기적!!

아침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시나요?

스트레스가 심하시나요?

모발이 얇아지고, 소갈머리, 주머니머리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제 “달아미인”이 해결해 드립니다.

발모방지 및 육포전문 헤어제품인 달아미인은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청 허가제품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배꼽아래 체모가 풍성해 진다.



1577-4101
010-5296-4114, 010-8952-4114

농협 569-12-034628 메글주:배지 www.핫나경.kr